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믿고 전하자

[성경본문] 마가복음 16: 14-16,

[14절] 그 후에.

제자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이었던 것 같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든지 아니면 몇 일 후이었을 것이다.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이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36-49의 때와 같을지도 모른다.

사도행전 1:3의 증거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는 그 후에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요 21:14).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때는 아마 누가복음 24:41-43에 기록된 때가 아닌가 싶다.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벌집(전통본문)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집수시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굳은 것, 완고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차적으로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1:21-22에 보면, 그들은 가롯 유다 대신 한 명의 사도를 보전하고자 할 때 그런 자격 조건을 말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를 증거하신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신다. 신약성경, 특히 네 권의 복음서들이 그러하며 또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등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밝히 증거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삼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 신약성경의 증언들을 잘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다. 주의 제자들과 그 후시대의 교회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임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았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주의 명령이 증거되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사도행전 1:8도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명령을 주셨음을 증거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죄인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행하신 병고침들과 귀신 쫓아내심들과 죽은 자들을 살리심들과 그 외의 여러 기적들과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심이다.

요한복음 5:36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히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하신 일들은 기적들과 부활을 포함한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것이 당신이오나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대답하게 하셨다.

교회의 특별한 임무 곧 **교회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교회는 이 사명을 이어받았다. 마가복음 1:38-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받음과 멸망이 된다.

요한복음 3: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전도는 구원의 방법이지만 또한 구원과 정죄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된다. 그러므로 전도는 엄숙한 일이다. 그것은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일이다.

우리는 성경에 밝히 증거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의 인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적 행하심들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 특히 그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 증거되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증언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완고함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한 증거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그 증거들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한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자.

주일오후설교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레위기 27: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하다’는 원어(아폴리 네데르)는 ‘어려운 서원을 하다’는 뜻이라고 한다(BDB, NASB). 사람의 값은 사람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값이고 그 서원한 자를 무를 때 드리는 값이기도 할 것이다.

[3-8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定價)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1세겔은 보통 약 11.4그램이지만, 성소의 세겔은 약 10그램이었다고 한다(NBD).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수 있었다.

[9-13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번개

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본문은 서원하는 가축을 바꾸거나 무르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14-15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본문은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무를 때의 규정이다.

[16-25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定價)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니 그가 그 밭을 회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회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회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定價)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定價)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회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定價)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회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定價)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니 그 밭은 회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두락[마지기]수대로’라는 말은 ‘뿌리는 씨의 양대로’라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은 1말의 씨를 뿌리는 논밭의 넓이를 한 마지기라고 불렀다. ‘한 호멜지기’라는 말은 씨를 한 호멜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이라는 뜻이다. 호멜은 10에바로서 약 220리터의 분량이다. 한 호멜지기의 밭의 값은 은 50세겔이었다.

그가 그 밭을 회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은 정한 대로일 것이며, 그 밭을 회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다음 회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값에서 상당하게 감할 것이다. 또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하였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또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남에게 판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 같다. 보통 남에게 판 땅도 본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 회년에는 돌려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회년에 돌려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바친 땅이 되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는 뜻 같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경우, 그 밭을 무르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회년까지 계산하고 그가 정한 값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아야 했다. 회년에 그 밭은 판 사람 곧 그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6-27절]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함 짐승이면 너의 정가(定價)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定價)대로 팔지니라.

가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려야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정함 짐승이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면 속(贖)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 부정함 짐승을 속(贖)하지 아니하려면 그 정해진 값대로 팔아 그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었다.

[28-29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바친 물건’이라는 원어(케렘 קָרָם)는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뜻이다. 아주 바친 사람이나 가축은 반드시 죽어야 하였고, 아주 바친 밭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돈을 주고 속하지 못하였다.

[30-34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본문은 십일조에 대한 규례이다.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贖)하려면 그것 대신 그 금액에 5분의 1을 더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소나 양의 10분의 1도 기계적으로 구별되어야 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자. 우리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온 우주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자(대상 29:11; 시 24:1).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자. 신약 성도는 모두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20,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들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자. 본장은 사람이 자기 소유물들, 즉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헌금)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가르쳤다(고후 8:7). 또 그는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하였다(고후 9:7).

넷째로, 우리는 십일조와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본장은 가축의 첫새끼와 땅의 곡식과 나무 열매와 우양의 십일조를 드림에 대해 규정한다. 잠언 3:9-10은 소독의 첫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좁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했다. 또 말라기 3:8-12는,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강조했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성도는 구약시대보다 더 풍성한 방식으로 십일조 헌금을 실천한다.

수요설교

의인 욥

[욥기 1:1]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었던 것 같고(애 4:21),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나 그의 몇 대 자손이었던 것 같다. 본문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한다. ‘순전하다’는 원어(תָּמִיךְ)는 비교적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을 가리킨다. 또 욥은 정직하였다. ‘정직함’은 올바름, 기준에 맞음이라는 뜻이며 의롭다는 말과 같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요(잠 1:7) 그럴 때 사람이 악을 떠날 수 있다(잠 16:6).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욕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은 비록 힘든 일이지만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욥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우리는 수고롭고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정상적 신앙생활은 현실도피적 생활이 아니다. 정상적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수고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성도의 일차적 경건 훈련의 장소이다. 자녀는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성도는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 겸손과 인내, 순종과 용서 등을 연습한다.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백 겨리[천이요 암나귀가 5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욕은 물질적 부요함이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부요는 신앙생활에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욥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했다.

[4-5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욕은 죄의 심각성과 성결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뿐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문은 “욕의 행사는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말한다. 그는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다. 부모에게 주는 성경 교훈의 핵심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이다(잠 22:6).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의인 욥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온전하였고 정직했고 악을 떠났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야 한다.

둘째로, 욥은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셋째로, 욥은 물질적 부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물질적 부요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물질적 여유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넷째로, 욥은 자녀들의 경건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힘썼다.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인격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자.